

이준기, 인생 리셋 열혈 검사로 돌아오다

AGAIN MY LIFE
어 게 인 마 이 라 이 프

4월 8일(금) 첫 방송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후속 새 금토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가 4월 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인생 2회 차, 능력치 만렙 열혈 검사사의 절대 악 응징기로 이해날 작가의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우아한 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이, 김울 작가가 집필하며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맡아 화제를 모은다. 여기에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을 비롯해 정상훈, 김재경, 최광일 등과 함께 대배우 이순재가 특별 출연해 완성도를 담보한다.

이준기는 극중 법과 정의 앞에 타협 없는 열혈 검사 김희우 역을 맡았다. 추방받는 정치인의 가면을 쓴 거대 악 조태섭을 심판하려다 도리어 죽임을 당한 뒤 살해당하기 15년 전으로 회귀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인물이다. 한번 살아본 인생 덕분에 두 번째 삶에서는 능력치 만렙의 갓검사가 되어 치밀하고 완벽한 판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의 탈을 쓴 악에 물든 절대 권력자 조태섭은 이경영이 분한다. 조태섭은 국민의 신뢰를 등에 업고 자신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자는 가차 없이 제거하는 잔인무도한 인물이다. ‘권력 위의 권력’이라 불리는 킹메이커로, 인자한 미소에 가려진 소름 돋는 실체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김지은은 극중 천하그룹의 외딸이자 소문난 천재 김희아 역을 맡았다. 비범한 지력과 미모, 스펙을 두루 갖춘 김희아는 무엇보다도 정의감에 불타는 인물이다. 김희우와 손잡고 불의에 맞서 거침없이 나아가면서 걸크러시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김희우의 든든한 간부 이민수는 정상훈이 맡았다. 법학과 선배이자 친구인 이민수는 허술해 보이지만 결코 허술하지 않은 남자다. 세상사에 관심 없던 그가 김희우를 만나고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극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검찰청 중앙지검장 김석훈의 혼외자로 뺨뚫어진 학창시절을 보낸 김한미 역으로 김재경이 출연한다. 김한미는 김희우를 통해 아픔을 극복한 후 ‘정의로운 기자’로 함께 싸운다.

조태섭을 보필하며 부패의 고리가 되는 검찰청 중앙지검장 김석훈 역으로는 최광일, 그의 부하 검사 역으로 김형묵, 김진우가 출연한다. 이권과 성공을 위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조태섭의 뒷일을 처리해주는 세 사람은 권력층의 단단한 내부 연대 이면에서 살아남고자 서로 물지 않으면 물리는 지옥도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경영의 손과 발을 대신하는 행동대장 ‘닥터 K’ 역으로 현우성이 출연한다.

제작진은 “운명처럼 찾아온 인생 리셋의 기회 속에서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온 김희우가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펼쳐질 치밀한 빅피처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두뇌싸움에 빠져들게 될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4월 8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SBS 스페셜> 가디언즈 of **툰드라** 3월 25일(금) 첫방송

10년 만에 다시 보는 툰드라 - 아이는 자랐고 툰드라는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끝’에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이들

2010년, SBS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시베리아 툰드라의 사계를 DSLR 카메라로 촬영해 큰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최후의 툰드라>가 10년 만에 그간의 기록을 담아 다시 찾아왔다. <최후의 툰드라>는 시베리아 북서쪽 야말반도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마지막 순록 유목민, 네네츠인들을 국내 최초로 밀착 취재한 바 있다. 그 후속작인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연출: 장경수)는 10년 만에 다시 만난 네네츠 아이들의 성장과 지구온난화로 변화하고 있는 툰드라의 모습을 소개한다. 네네츠어로 ‘세상의 끝’을 뜻하는 야말. 얼어붙은 극지방의 땅에서 만났던 일곱 살 소년 꼴라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작진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툰드라의 주인, 네네츠 사람들과 떠난 순록 유목 대장정!

겨울이면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를 웃돌고 여름에는 모기가 들끓는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네네츠족의 삶은 순록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계절에 맞는 순록의 먹이를 찾아 1년 365일을 길 위에서 생활하며 하루에 많게는 35km 정도를 유목한다.

순록은 그들에게 있어 뿔과 가죽, 그리고 고기까지 그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는 귀중한 자산이다. 수천 마리가 넘는 순록 무리들을 얼굴만 보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 순록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순록들이 있는 곳에 네네츠 유목민이 있다. 무작정 툰드라 허허벌판으로 나선 제작진들은 장장 37시간의 대장정 끝에 순록 무리를 찾아내 유목여단과 만날 수 있었다. 1부와 2부에서는 제작진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네네츠인들과 수천 마리의 순록들, 그리고 수백만 마리의 모기떼와 9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생생한 현장을 전달한다.

흔들리는 툰드라, 10년간의 변화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인 툰드라가 지구온난화로 점점 망가지고 있다.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영구동토가 녹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땅 아래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크고 작은 싱크홀이 생겨나고 있다.

네네츠인들에게 기후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순록들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툰드라에 싱크홀이 최초로 발견되었던 2014년, 수만 마리의 순록들이 목숨을 잃었다. 눈 대신 내린 빗물이 다시 얼어버리면서 순록

들이 땅 속의 이끼를 먹지 못한 것.

이들은 얼마 남지 않은 순록의 유목 경로마저 바뀌며 살아가고 있다.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인 툰드라의 자원을 캐내기 위해 야말반도 길 한복판에 파이프라인과 철도, 그리고 도로와 같은 시설들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과연 툰드라의 청년들은 앞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도시나 툰드라나,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는 청년들

잠시 툰드라를 떠나 도시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네츠 청년 꼴라와 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 ‘편리하고 비전 있는 도시’와 ‘변화중인 전통의 툰드라’ 사이에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툰드라의 매력은 무엇일까? 네네츠 청년들의 선택과 앞으로의 운명은 4부작으로 방송될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1부 ‘툰드라의 상속자들’은 3월 25일(금)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26일(토)에는 2부 ‘흔들리는 툰드라’, 4월 1일(금)에는 3부 ‘툰드라의 경고’, 4월 2일(토)에는 4부 ‘툰드라 10년의 기록’이 각각 밤 10시에 전파를 탄다.



‘라디오센터’에서 ‘오디오센터’로 가는 발판

- 라디오센터 라디오콘텐츠전략팀

작년에 라디오편성기획팀에서 라디오콘텐츠전략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인가?

전천후 하이브리드형 부서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우선 라디오 운행 및 편성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이 한 축을 이룬다. 파워FM과 러브FM, 두 채널이 24시간 매끄럽게 나가기 위해선 SB 편성물 및 캠페인 제작, 일일방송운행표 작성, 자동송출시스템 방송스케줄 작성 및 조정, 녹음 프로그램 입고 확인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밀한 과정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업무의 또 다른 한 축은 지난 몇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뉴미디어 영역이다.

뉴미디어 업무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오디오콘텐츠와 연관된 뉴미디어 시장의 변화들을 탐색하고, 미디어전략팀, 라디오기술팀, 광고팀 등 유관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SBS 라디오만의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고 서바이벌 키트를 마련하는 일이다. 고릴라 청취자 데이터 분석,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인 ‘에라오’ 운영, 다시듣기 편집 및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 등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 중 일부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형태의 수익화 방안도 끊임없이 모색한다. 예컨대 고릴라 음성대체광고 모델을 개발해 기존에 없던 수익원을 창출했고, <두시 탈출 컬투쇼>와 <배성재의 텐>과 같은 킬러 콘텐츠를 기반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파트너십을 체결해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공연 시장이 성장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협찬을 유치해 파워/러브FM 프로그램들과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다.

부서원 소개를 해 달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성격이 강한 부서인 만큼, 구성원 또한 다양하다. 4조 3교대로 근무하는 MD 4명, 편성PD 1명, 제작PD 2명,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는 미디어기술연구소 출신 겸직 1명, 팀장 포함해서 총 9명이 뛰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영상편집, 캠페인 제작, 팟캐스트 제작 등을 담당하는 10명의 외부 인력이 함께한다. 우리 부서엔 새로움과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는 성장형 마인드셋을 갖춘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확도를 높이고 시간을 지체하며 우왕좌왕하기보다는, 큰 방향성을 잡고 잔걸음으로 가볍게 실험을 이어가자는 주의다.

올해 목표는?

4월에 리뉴얼된 고릴라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월에 공식 유튜브 ‘에라오’가 구독자 100만을 달성했는데, 하반기엔 고릴라 MAU(월간 서비스 이용자) 100만 돌파 소식을 전하고 싶다.

끝으로 한마디.

실험 정신의 용량을 키워나가겠다. 궁극적으로는 ‘라디오센터’에서 ‘오디오센터’로 진화하는 데 발판이 되는 부서로 거듭나고 싶다.



뉴미디어 원조 SBS, '디지털 퍼스트'로 파란불

- 박진호 보도본부 디지털뉴스국장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공채 6기로 입사해 쪽 기자로, 또 앵커로 일했고, 직장인인 아내와 대학생 딸과 가끔 '소맥'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즐거운 딸 바보 아빠다. 지난해부터 디지털뉴스국장을 맡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있는 세대적 한계가 어쩌면 역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다는 위안도 해본다. 경험을 최적화해 후배들의 미래에 도움을 줘야하는 의무감이 있다.

기자로, 또 앵커로 잊지 못할 사건이나 순간이 있을까?

2008년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별판과 모스크바에서 한국 최초 우주인의 탄생을 생중계했던 일이 가장 생생하다. 귀환 과정에서 이소연 박사가 탄 착륙선의 행방이 한동안 묘연했는데 <8 뉴스> 연결과 동시에 무사한 모습이 확인되며 극적으로 방송할 수 있었다. 당시 기자와 PD, 기술과 경영 파트까지 SBS 전 부문의 선·후배들이 뭉쳐 열정적으로 일했는데, 요즘 최고의 경쟁력으로 올라선 우리 채널을 보면 그때의 떨림이 자꾸 생각난다.

디지털뉴스랩과 디지털뉴스국 수장을 겸임하게 됐다.

NYT의 디지털 혁신 과정을 보면, 전통 기자들과 디지털 테크 개발자, 웹 에디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협업 과정에서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대단한 시너지가 발생했다. 디지털뉴스랩 구성원들은 이미 SBS 뉴스콘텐츠의 디지털화와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기자들도 이들과 경계를 뛰어넘는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 겸임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지만, 같은 시야에서 조율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과 동반성장하는 것은 앞으로 보도본부

의 통합 뉴스룸과 구독 모델 추진에 필수 조건이다. 디뉴랩 직원들의 지속적인 처우 향상과 함께 보도 부문의 전체적인 디지털 제작 인력 재편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SBS의 '디지털 퍼스트' 현황은 어떤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

지난 대선 선거방송의 유튜브 LIVE 조회 수가 총 730만 명으로 TV 시청자 수를 압도했다. 특히 뉴스콘텐츠는 모바일을 통한 소비 비중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SBS 뉴스를 'TV 채널을 가진 뉴스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게 디지털 퍼스트의 핵심 개념이다. 지난해부터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영상편집, IT 개발자도 참여한 2차례의 TF가 치열한 논의를 가졌고, 이 제언에 따라 TV 뉴스에 최적화된 조직 관성을 바꾸는 작업을 3단계 로드맵으로 진행해왔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부감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동안 <8 뉴스> 방송 전에도 단독, 주요기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선출고를 시행했고, 디뉴국 소속으로 바뀐 탐사2부(현 D탐사제작부) 기자들은 이슈-기획기사를 디지털로 먼저 제작한 뒤 TV에 내는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올해부터는 보도국 취재부서 기자들의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D콘텐츠기획부가 프로듀싱하며 지원하고 있다. 1월엔 전사적인 실무추진단이 발족해 각 부문의 도움을 받고 있다. 올 하반기엔 가장 어려운 3단계를 시도한다. 관건은 ① 급격한 업무부담 증가를 막는 효율성, ② <8 뉴스> 중심 조직구조를 바꾸되 뉴스 포맷 변화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취재한 뉴스 콘텐츠를 디지털과 TV 경계 없이 활용하고, 모든 기자들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편안하게 의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완성된다.



'디지털 퍼스트'가 디지털뉴스국만의 일이 아니라 보도본부 전체의 현안이다. 보도국과 협업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협업은 이미 진행 중이고 조직 경계를 허무는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보도국장이 매일 편집회의에서 <8 뉴스>의 유튜브 동접 수를 체크하는 게 상징적 변화다. 기사를 낼 때 TV와 플랫폼을 차별하지 않는 기사가 늘어나며 <워싱턴 인사이드>, <비머 Q&A>같은 콘텐츠가 나왔다. 또 그 사례를 매일 일기처럼 보도본부 전체에 공유해 노하우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한창이다. 보도국이 정신없이 바빴던 대선 이후에는 편집회의도 <8 뉴스> 중심이 아닌 뉴스콘텐츠 전략회의 형태로 바뀌어 TV와 디지털콘텐츠를 통합 발제하기 시작했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고 저항도, 이견도 당연히 받게 된다. 하지만 스브스와 비머를 만든 뉴미디어 원조의 전통이 탄탄하고, 무엇보다 차세대의 후배들이 주도하는 작업이란 점에서 희망적이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한마디

어려운 보직 임무를 마치고도 다시 깊이 있는 저널리즘에 헌신하는 선배들의 모습에 항상 존경심을 느낀다. 변화가 안정 궤도에 올라 후배들에게 키를 맡기고 한 사람의 기자, 콘텐츠 생산자로 돌아갈 날을 항상 생각한다.

'멘토 가수와 떠나는 봄 여행' 힐링 뮤직쇼



새로운 힐링 뮤직쇼 <싱포레스트>가 3월 30일(수) 첫 방송된다.

<싱포레스트>는 시대를 대표하는 멘토 가수와 MZ세대를 대표하는 후배 가수들이 모여 멘토 가수의 명곡을 후배 가

수들의 감성으로 재조명하는 힐링 음악 여행 프로그램이다. 첫 멘토 가수로 '뮤지션들의 뮤지션' 거미가 출연한다.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거미는 자신의 노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후배 아티스트와의

색다른 케미로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거미를 사랑하는 후배 뮤지션들로 MSG워너비로 차트를 올릴한 래퍼 원슈타인과 JTBC <싱어게인> TOP 4로 실력을 증명한 이소정이 함께한다. 여기에 JTBC <슈퍼밴드 2>에서 최종 5위를 기록한 싱어송라이터 제이유나와 독보적인 음색을 가진 차세대 OST 강자 로시가 더해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인, 만 19세의 음악 천재 시온이 히든카드로 공개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높이고 있다.

<싱포레스트>에서는 거미와 후배 가수들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공개된다. 여행지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모습 등 그들의 리얼한 일상도 엿볼 수 있다. 제작사 피키스튜디오는 "아티스트들 간의 신선한 케미는 물론, 후배 가수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거미의 음악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4부작 <싱포레스트>는 3월 30일(수) 저녁 6시에 첫 방송되며, 같은 날 저녁 7시 <싱포레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리모델링 정보와 재미 하우스대역전 3월 25일(금) 첫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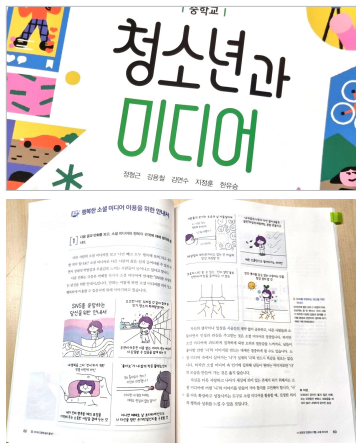
SBS F/L 신규 프로그램 <내 집의 변신-하우스 대역전>(이하 <하우스 대역전>)이 오는 3월 25일(금) 첫 방송된다. <하우스 대역전>은 집의 가치를 높이는 하우스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낡고 오래된 나의 집을 최고의 전문가 군단이 다양하게 리모델링해 용도에 맞게 수익성 창출과 개선을 도와주는 생활 밀착형 프로젝트다. MC는 김성주를 비롯해 전진, 박군, 김지민이 맡았다. 4명의 MC는 풍성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며 빛나는 케미로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김성주는 유쾌한 말솜씨와 독보적인 순발력으로 <하우스 대역전>에서도 완벽한 진행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전진은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박군도 4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인 만큼 리모델링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지민 역시 뛰어난 예능감으로 프로그램의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김성주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려고 한다.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 하실 내용 위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하우스 대역전>을 위해 리모델링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는 전진은 “리모델링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갖고 있는 MC가 돼 시청자들이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하우스 대역전>은 매주 금요일 SBS에서 오후 5시 50분, SBS F/L에서 저녁 8시에 방송된다. SBS MTV에선 토요일 낮 12시에 확인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광고주의 마케팅 활동 지원 제도 확대

SBS와 SBS M&C는 벤처/스타트업 광고주의 마케팅 활동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사내 맞선>, <펜트하우스>, <그해 우리는>, <웃으며 붉은 꽃> 등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MZ세대에게도 이슈가 되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 상황으로 TV 시청률이 증가했고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지상파 광고 시장은 2021년에는 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SBS는 28% 상승했다. 2022년 들어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기준 1,985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고, SBS는 38% 성장해 2017년 수준까지 회복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소규모 벤처/스타트업 광고주도 광고를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 광고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BS는 벤처 광고주 인증이 된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TV광고 단가 70% 할인, 혹은 TV광고 보너스를 250%까지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성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2020년에는 42개 기업이 혜택을 받았고, 2021년에도 62개 기업이 선정되는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SBS M&C는 광고 소재 제작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광고주에게 광고 제작비용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비용 구조의 TV 광고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다. 광고주가 제품/서비스 관련 이미지를 제공하면 최소 비용으로 TV 광고 제작이 가능하다. 벤처 소재 제작 광고주 지원 규모도 2020년 1억 4,000만 원 규모에서 2021년 2억 2,000만 원으로 확대했는데, 각 광고주별로 제작비용의 50%,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SBS M&C 홈페이지(<https://n.methodia.co.kr>) Contact Us를 통해 가능하다.

웹툰,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2019년 SBS D포럼에서 아트 프로젝트로 기획한 웹툰이 중학교 ‘청소녀와 미디어’ 교과서에 실렸다. 2019년 “변화의 시작-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를 주제로 정한 SBS D포럼은 당시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으로 발생하는 ‘확증편향’과 ‘필터 버블’ 같은 폐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웹툰 작가들과 협업해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에 교과서에 실린 ‘SNS를 유량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는 더블유 박혜원 작가의 작품으로, SNS를 활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 등의 심리를 쉽고 친근하게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발한 ‘청소녀와 미디어’는 중학생 미디어 교육을 위한 서울시 교육감 승인 인정교과서로, 미디어의 개념과 기능, 오보와 허위 조작 정보, 대중문화와 소셜미디어 관련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인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의 대체, 혹은 보조 교재로 사용된다. PDF 파일 형태로 포미 사이트(forme.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한국검정교과서협회(031-956-8581)나 창비교육(070-4838-4934)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수소가 바꾸는 세상> KBCSD 언론상



오른 수소 에너지를 대중이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2년 설립된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는 경제, 환경,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기업 CEO 협의회로, 에너지 사업이 있는 주요 대기업과 전직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3부작 다큐멘터리 <수소가 바꾸는 세상>(이현식, 정명원, 김승필, A&T 정상보, 이찬수)이 제16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 방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소가 바꾸는 세상>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

<공생의 법칙> 이달의 PD상



<공생의 법칙-교란은 곤란해, 조화가 필요해>(연출: 김진호, 강미란, 서하연, 작가: 명민아)가 한국PD연합회 제263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했다. TV 예능 부문 수상작인 <공생의 법칙-교란은 곤란해, 조화가 필요해>는 8개월 동안 전국 약 1만 1,000km에 이르는 생태답사를 통해 토종 생태계가 처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심사위원회는 “환경이 현존하는 최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다양성과 공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았다”며 “특히, 교란종 퇴치에 그치지 않고 이연복 셰프와 함께 식재료 활용 가치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활용법을 고민하며 우리 사회에 ‘공존’과 ‘조화’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했다.